

# 과학기술계의 큰 별 송곡(松谷)을 기리며

이제 저희들은 선생님의 힘찬 음성, 형형한 눈빛, 불굴의 지도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라와 국민과 젊은 과학자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사랑을 마음 속 깊은 곳에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고인께서 그리도 애타게 그리시던 선진 조국의 꿈과 이 나라를 연구개발주식회사로 발전시켜 달라시던 선생님의 유지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글\_ 채영복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지난 5월 29일은 우리 과학기술인 모두에게 안타깝고 슬픈 날이었습니다. 그 날은 우리 과학기술계의 거목이 쓰러지신 날이었습니다. 송곡(松谷) 최형섭 박사님이 저희들의 곁을 영원히 떠나시고 만 것입니다. 서울과 대덕에 마련된 빈소에는 수많은 후학과 후배들이 찾아와 최형섭 박사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안타까워하며 통곡했습니다.

고인이 우리 나라 과학기술발전에 미친 영향과 그 큰 업적은 한 두 마디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고(故) 송곡 최형섭 박사님은 60년대와 70년대 과학기술의 불모지였던 이 나라에 과학과 기술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 주셨고,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선구자이셨습니다. 정부도 고인의 높은 업적을 기리기 위해 고인에게 최고의 훈장인 과학기술훈장 창조장을 추서하고, 고(故) 이태규 선생님에 이어서 과학기술인으로는 두 번째로 고인의 유해를 국립현충원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송곡 선생님의 삶은 그야말로 맑고 사심이 없는 청아

하신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깨끗한 자세를 잃지 않으셨던 고인은 언제나 후학들에게 엄정하시면서도 따뜻하셨던 진정한 학자이셨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행정가이셨고, 오직 이 나라 과학기술만을 위해 평생을 바쳐오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고인은 1960년대말 우리 나라 GNP가 100달러를 밑돌던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의 힘을 얻어 당시의 국력으로는 상상을 넘어서는 규모의 KIST를 설립하셨습니다. KIST는 당시 불모지였던 우리 기업의 연구실 역할을 맡아서 산업 기술 개발의 공백을 메워주었고, 동시에 정부에 국가 산업발전의 밑그림을 그려주는 중요한 두뇌 집단으로 우리 나라를 근대 산업국가로 발전시키는 기틀을 마련해주었습니다. 당시에 우리에게만 낯설기만 했던 계약 연구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셨고, 공공연구의 성과와 산업 발전을 연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해 모든 정열을 쏟으셨던 분이 바로 고인이셨습니다. 그 때 우리 기업은 정부의 개발 계획에 편승하고, 급등하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회사를 키우는 데에만 급급했을 뿐이고, 연구개발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고인은 그런 기업에 연구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셨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온 정열을 쏟으셨습니다.

KIST를 설립하던 시기에 국내에서 활동하던 박사 학위 소지자는 십 수명에 불과했었습니다. KIST의 초대 소장이셨던 송곡 최형섭 박사님께서서는 미국 등지에서 일하고 있던 우리 과학기술인들을 불러모으기 위해서 잦은 순회 여행을 하셨습니다. 고인은 재외 과학기술인들에게 “여러분, 노벨상을 타시고자 하는 분들은 여기에 남으십시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

대전국립현충원 고인의 묘역에 분향하는 과학기술인들



고 싶은 분들은 나를 따라 귀국해주십시오”라고 설득을 하셨습니다. 독일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선진국들도 고급 두뇌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절에 우리는 오히려 고급 두뇌를 들여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선진국에서까지 고인의 이런 업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일들이 새삼스럽게 떠오릅니다. 불과 몇 십 년 전에 바로 이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남의 나라의 일이었다는 것처럼 아스라이 멀게만 느껴지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떠나신 고인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만 느껴집니다.

고인께서는 과학기술 행정에 몰두하시면서도 KIST 한 모퉁이에 마련했던 연구실에서 끊임없이 연구에 정진했던 진정한 과학자이셨습니다. 연구에 대한 고인의 강한 집념은 후학들에게 사표(師表)가 되었고, 실제로 화학 야금학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도 이룩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인께서 개발하셨던 부유선광법은 저품위 철광석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은 획기적인 학문적 성과였습니다. 그밖에도 습식 야금과 초내열 합금 등을 개발하셨던 고인은 야금학분야의 세계적인 학자이셨습니다.

항상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를 강조하셨던 고인은 방심하기 쉬운 젊은 연구원들에게는 자칫하면 천장이 무너질 정도의 불호령을 내리는 ‘호랑이 소장’이셨습니다. 신뢰하고 사랑하는 후학들일수록 고인의 불호령 소리는 더욱 컸습니다. 물론 그 속에 젊은 과학자들에 대한 고인의 깊은 신뢰와 애정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인 스스로의 학문적 업적과 열정이 없었던들 고인의 그런 고집이 후학들에게 설득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인의 용기와 배짱은 상대를 가리지 않았습니니다. 수시로 KIST 건설 현장을 찾으시던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너무 자주 오시면 연구에 지장이 있다고 직접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KIST 건설에 관심이 많으셨던 박 대통령은 자주 건설 현장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고인의 건의를 기억하신 박 대통령은 건설 현장의 인부들에게 막걸리로 격려를 하시고는, 연구실에는 감히 들르지도 못하고 돌아가셔야 했던

웃지 못할 두 분 사이의 정겨운 일화들이 남아있습니다.

고인의 능력이 가장 돋보였던 시기는 과학기술처의 장관으로 재직했던 1971년부터 1978년까지였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장관직을 수행하시면서 기술개발촉진법을 비롯해서 과학기술계를 위한 모든 기본적인 법률과 제도를 완벽하게 정비하는 과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과학기술계의 기반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안정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서 한국과학재단과 많은 정부 출연연구소를 설립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과학기술계의 요람으로 성장한 대덕연구단지지를 잉태하고 건설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도 역시 고인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서 선진국 대열진입을 꿈꾸게 된 데에는 박정희 대통령과 고(故) 송곡 최형섭 박사님의 과학기술에 대한 확고하고 높은 비전과 뛰어난 지도력이 큰 바탕이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고인의 이러한 업적은 당연히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고인의 확고하고 높은 비전과 뛰어난 업적은 UN은 물론이고 뒤늦게 과학기술 분야의 중요성을 깨달은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의 발전모델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고인은 여러 개발도상국 국가원수들의 초청을 받아 자문에 응하셔야 하셨습니다.

송곡 선생님의 강건하심은 언제나 저희들의 표상(表象)이셨습니다. 고인은 뛰어난 학자의 절개를 지켜내셨고, 공인으로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일생을 보내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생님의 불타는 애국심과 높은 비전은 저희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월의 힘은 어쩔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선생님의 힘찬 음성, 형형한 눈빛, 불굴의 지도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라와 국민과 젊은 과학자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사랑을 마음 속 깊은 곳에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고인께서 그리도 애타게 그리시던 선진 조국의 꿈과 이 나라를 연구개발주식회사로 발전시켜 달라시던 선생님의 유지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이제 조국과 후학들에 대한 사랑을 고이 접으시고 평안하게 영면(永眠) 하소서. ㉑



고(故) 송곡 최형섭 박사 근영